

# 반도체 악재 견뎌낸 완성차업계… 파업 신호에 ‘브레이크’

##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 보고서

반도체 공급난 내년까지 지속 전망  
“국산화 위해 파운드리 육성 필요”  
현대차 등 노조 파업 올해도 반복

국내 완성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현상 장기화와 노조 파업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완성차 업계는 올 하반기 정상화를 목표로 생산성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각종 악재로 ‘급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상반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발생한 생산 차질을 만회하겠다는 완성차업체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12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간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올해 2분기(4~6월)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점진적 회복세를 나타내고,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마이크로컨트롤유닛(MCU)·고성능반도체의 대만 ‘TSMC’ 생산의



현대자동차 노조가 5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시스

존도가 급증해 잠재적 공급망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일본 르네사스 공장 화재로 인한 생산 능력은 복구됐으나 정밀한 공정 품질을 확보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파운드리 기업이 공장을 추가 증설하더라도 검증·양산까지 3년 이상 필요하다. TSMC의 경우 올해 1월 증산이 이뤄졌고 6월부터 최소수요가 충족되기 시작했으며, 내년 1월 정상 회복이

예상된다.

다만 연구원은 자동차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상생산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 지연된 생산량만큼 추가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TSMC’에 대한 생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은 생산량이 적어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인증·투자 비용이 높기 때

문에 MCU·고성능 제품 중심으로 TSMC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차량용 반도체는 기능별 고성능 칩으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며, TSMC 공정의 대체 불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 지원정책과 자동차 업계의 내재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파운드리 확대가 미비한 것이 문제”라며 “진정한 의미의 국산화를 위해서 자동차 전용공정·협력을 통한 국내 파운드리 육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완성차 업계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파업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민주노총 가입을 다시 추진한다. 르노삼성 노조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노총 가입을 논의했다. 다른 완성차 노조와 연대를 통해 임

단협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최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가결시켰다. 노조는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중노위 조정 기간은 12일까지다.

한국지엠 역시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76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선 76.5%의 찬성표를 얻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부품 또는 총파업으로 교섭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임단협 갈등을 둘러싸고 파업을 무기로 삼는 노조의 움직임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등 악재를 딛고 반응을 준비하는 완성차업체에 파업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집 밖은 위험해…”서 계속

## 국제선 재개 꿈꾸던 항공사, 코로나 재확산에 침울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 1000명대  
업계, 향후 추이 따라 운항중단 고려

항공 업계가 트래블 버블을 통한 국제선 재개의 본격화를 전망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이마저도 난망한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국제선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이 나왔다. 정부가 휴가철에 앞서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정부는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 시행에 합의했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도 사이판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항공사들도 차츰 트래블 버블을 활용한 국제선 재개 계획을 내놓고 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은 오는 24일부터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도 오는 29일부터 같은 노선을 운항한다. 또,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인천-괌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이달 31일, 대한항공과 에어서울이 각각 다음달 5일과 12일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문제는 코로나 확산 관련 국내 상황이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는 데 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날 기준 12만 1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20일 5일 연속 이후 역대 최장기간 1천 명대를 지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서 사실상 여행 심리도 다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더라도 여행 수요가 회복하지 않아 사실상 트래블 버블을 통한 항공사의 수익성 제고도 불가능하게 된다. 적정 수준의 탑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항공기를 띄울 경우 외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트래블 버블을 통해 일부 국제선을 운항 재개했다고 해도 언제 다시

운항을 멈추게 될지도 알 수 없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 부문에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에 한해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 목적의 국제 이동을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양국의 트래블 버블 합의문에는 시행 이후 확진자 수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트래블 버블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악화하면 국제선 운항 재개 자체도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 등 추이를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국제선의 운항 재개를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되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운항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 재개 관련 변경 사항은 아직 없다. 대신 국내 추이나 국가 간 트래블 버블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회복세 기다린 매장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9일부터 진행하려던 하절기 연장 영업을 중단기로 했으며, 12일부터는 문화센터도 문을 닫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매출 회복세를 보이던 면세업계도 울상이다. 지난 3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조4341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2700억원 가량 증가했다. 4월과 5월에는 각각 1조5574억원, 1조5687억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전체 이용객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월평균 약 6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면세업계는 외부활동 재개로 인한 방문객 증가를 대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롯데면세점은 온라인 사이트를 개편하고 고객 참여형 특가구매, 증강현실 AR쇼핑, 품질 상품 등 사전 예약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오는 9월 인터넷 면세점 개편을 준비했고, 사용자경험(UI·UX)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이트 개편하며 다양한 브랜드를 추가로 입점시켰다.

여행사들도 앞다퉀 여행 상품을 내놨다. 지난달 한 홈쇼핑 업체에서 판매한 트래블 버블 5개국 여행 상품에는 3000명이 예약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델타변이바이러스와 집단 감염 사태가 발발하면서 해외 여행 재개 시점은 불투명해졌고, 하늘길은 다시 막혔다.

편의점의 경우 주택가 상권 매장은 근거리에서 장을 보려는 고객들도 매출이 늘어났지만, 오피스 상권이나 학교·학원가, 유흥가에 위치한 점포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계기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 일로 다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쌍용차, 전직원 무급휴업 돌입… 평택공장 1교대 전환

투자자 유치 앞서 불확실성 해소  
라인간 전환배치로 시장수요 대응

쌍용자동차가 지난 6월 합의한 자구방안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전직원 무급휴업에 돌입한다. 투자자 유치를 앞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쌍용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무급휴업신청 건이 승인되면서 12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무급휴업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간 연속 2교대로 운영 중

이던 평택공장 생산 라인은 1교대로 전환된다. 전체 기술직은 50%씩 2개 조, 사무직은 30%씩 3개 조로 편성해 매월 1개 조씩 순환 무급휴업에 돌입한다.

쌍용차는 무급휴업에 따른 생산물량 대응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라인간 전환배치 등으로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우선 4000여대의 미출고 잔량이 남아 있는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을 생산하는 3라인의 증산을 결정했다. 1라인은 감산하는 라

인간 전환배치를 통해 약 4% 이상의 생산효율을 높였다.

무급휴업과 함께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150여 명(자연 감소율 17%)의 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 외에도 매년 4~6% 수준의 생산효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쌍용차는 자구안이 시장 경쟁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위기 극복의 전제가 되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선례가 될 것이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라고 강조했다. 자구안에는 무급휴업 외에도 임단협 주기 연장(2년→3년), 정상화까지 쟁의행위 중단, 전환배치 시행,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 총인 미시행 등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이 포함됐다.

/양성운 기자 ysw@